

경상도 邑治 景觀의 鎭山에 관한 고찰*

최 원 석

경상대학교 연구교수

1. 머리말

조선시대 군·현 邑治의 대다수는 현재 지방 도시의 도심부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邑治의 과거 공간구조는 지금도 지방 도시 공간체계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邑治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연구가 부진하여 가장 기본적인 邑治 경관 구성요소의 위치나 규모조차 밝혀지지 못한 군·현이 많은 실정이다.

경상도 지방에 있었던 약 71개의 邑治 경관은 수도 한양을 宗主로 하는 지방행정체계상의 일반적인 공간구성 원리를 따르고 있으나 각 지방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맞추어 개성적인 역사적 경관을 구성하였다. 특히 邑治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인 鎭山은 邑治의 입지 및 배치, 공간 구성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邑治 景觀의 구성에 있어서 鎭山 요소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본다.

둘째, 鎭山 개념의 역사적인 정의와 기원, 그리고 변천 과정을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고 정리한다.

셋째, 鎭山은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 살펴본다.

넷째, 영남지방 鎭山의 분포 특징을 분석한다.

다섯째, 邑治의 입지 및 공간의 구성에서 鎭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본다.

여섯째, 鎭山의 風水의 상징체계와 裨補 사실에 관하여 고찰하고 해석한다.

2. 邑治 景觀에서의 鎭山 요소

읍치 경관과 鎭山을 상관적으로 살펴보면 읍치는 대체로 鎭山을 등지고 입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邑治의 공간구성 및 객사·관아 등 주요 행정경관의 배치도 鎭山이라는 경관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鎭山에 대한 풍수적 裨補의 사실도 발견된다. 곧 鎭山은 邑治의 중심을 기준으로 대체

* 이 글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3년도 인문사회분야 중점연구분야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로 10里 이내의 거리 안에서 後面에 위치하여 있으며, 그 취락을 진호하고 표상하는 상징성을 지님과 아울러 기능적으로 主山이 될 경우에는 邑治 주요 경관 및 장소의 입지와 배치, 그리고 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되는 것이다.

邑治 경관은 입지·영역·장소적 경관의 차원에서 각각 경관 유형과 세부 경관요소로 세분되어 고찰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鎮山이라는 邑治 경관 요소는 邑治의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될 뿐만 아니라, 邑治의 풍수적 형국 및 범위를 규정하는 지리적 요소가 된다. 장소적 경관의 차원에서 볼 때 鎮山에는 厲壇과 성황사를 비롯한 읍치의 제의적 경관요소와 佛宇 등의 종교적 장소, 그리고 烽燧나 邑城 등의 군사적 장소가 있고, 官衙 및 客舍 등의 행정적 장소의 입지 및 배치 역시 鎮山과 무관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볼 때, 鎮山은 邑治 주요 경관의 입지 및 배치, 그리고 공간구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자연지형적 조건이자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邑治 공간 구조에서의 基本軸과 中心性을 파악하여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의 배치·坐向·街路網의 형태 및 구성 등에 관한 지리체계적 문법의 구조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3. 鎮山의 정의와 전개

중국에서 '鎮'이나, 鎮山의 辭典의 뜻은 『周禮』, 春官, 大司樂에 “州의 名山으로 특별히 큰 것을 그 지방의 鎮이라고 한다.(海州之名山殊大者 以爲其州主鎮)거나, “한 지방의 主山을 鎮이라고 일컫는다”고 정의하였으되, 고려와 조선의 경우에는 지방 뿐만 아니라 國都 도성의 主山도 鎮山이라고 일컫고 특별한 관리를 하였다.

鎮山은 취락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산악이라는 상징 및 신앙성이 부여된 개념으로서 그 사상적 기원은 고대적인 山神信仰 혹은 山岳崇拜에 그 뿌리를 두며, 山觀念의 계통에서 볼 때 '神山' 觀念에 속하는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국가적으로 鎮에 대한 신앙적인 제의가 있었고, 본격적인 鎮山으로서는 늦어도 고려 중엽에는 國都의 주요한 산을 鎮山이라고 불러 裨補할 대상으로서 특별한 관리를 하였으며, 이윽고 國都의 鎮山 관념은 지방으로 일정 정도 확산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15세기 중엽에 邑治의 경관요소로서의 鎮山의 배정이 두드러졌고 이윽고 16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각 지방 邑治에서 鎮山은 주요 경관요소의 하나로 지정되어 일반화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鎮山의 來脈과 위치에 대한 지리적인 인식이 더욱 정교해 졌다.

4. 鎭山의 기능

영남 邑治의 鎭山을 발생론 및 기능론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
가 가능하다.

첫째, 취락을 鎭護하는 산이라는 고유의 鎭山 기능이 유지되는 象徴的 鎭山이다. 이러한 鎭山은
거리상으로는 읍치의 5리 밖에 위치하는 것이 많으며, 이웃 군현간의 경계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읍
의 영역성을 나타냄과 아울러 읍 영역내의 시각적 경관에서 가장 탁월한 산이 지정되어 읍의 랜드
마크가 된다. 이러한 사례의 邑治로는 밀양, 언양, 영천, 영일, 하양, 경산, 함창, 함안 등이 있다. 한
편, 읍의 군사방어적인 장벽 혹은 상징적 보호물로서의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서 울산의 無里龍山이
있다. 이 경우 읍치의 來脈에서 主山의 기능을 하는 산이 鎭山과는 별도로 새로 지정되기도 한다.

둘째, 초기적인 鎭山 개념이 풍수적인 主山 개념으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기능이 부여된 鎭山이
다. 이러한 鎭山은 거리상으로 대체로 邑治의 5리 내에 위치하며 읍치 및 주요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상도에서는 청송, 대구, 동래, 청하, 장기, 예천, 영주, 영덕, 봉화,
예안, 용궁, 양산, 청도, 의흥, 창녕, 신녕, 진주 등 대다수 邑治의 鎭山이 이에 해당된다.

5. 경상도 鎭山의 분포 특징

영남지방 읍에서 나타나는 鎭山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총 71읍 중에 11개를 제외한 60개 읍에
鎭山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율은 도별로 강원도와 황해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특히 경남지방에서는 총 30개의 읍 중에 三嘉를 제외하고는 모두 鎭山을 정하고 있으니, 이러한 비
율(97%)은 他道에 비하여 가장 높다.

그리고 읍을 기준으로 한 鎭山의 위치는, 北 31, 東北 2, 東 9, 東南 1, 南 6, 西南 1, 西 10개 읍으
로서, 북쪽에 鎭山을 지정한 읍이 60개의 邑 중에 31개로서 51%의 비율을 차지하여 가장 높고 전국
적인 비율과도 비슷하게 나타나며, 서쪽에 鎭山을 둔 경우가 10개 읍으로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邑治가 주로 북쪽 아니면 서쪽의 산을 등지로 남향 혹은 동향하여 입지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상식적인 인식과는 달리 남쪽에 鎭山을 둔 경우도 6개 邑(대구·경
산·영일·청도·거제 古縣·지례)이나 되는데, 게다가 동남쪽에 鎭山을 둔 군위와 서남쪽에 鎭山
을 둔 함안을 더한다면 모두 8개 읍이 남쪽 방면에 鎭山을 두고 있다. 이렇게 남쪽에 鎭山을 두는
경우는 邑治의 지형적인 조건상 북쪽으로는 하천이 가로질러 흘러서 背山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거나(대구, 경산 등), 남쪽에 높은 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평야가 펼쳐 있는 南高北低의 지형적 조
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청도, 거제 古邑)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鎭山과 邑治의 거리를 분석하여 볼 때, 5리 이내가 39개 읍으로 66%의 비율을 차지하고,

10리 이내가 12개 읍, 10리에서 20리 이내가 5개 읍, 20리 이상이 3개 읍으로 나타났다. 가장 읍에서 멀리 있는 鎭山은 영천의 母子山으로 90리나 떨어져 있다. 여기서 대체로 약 5리 이내의 鎭山은 모두 풍수적인 主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로서 영남 지방의 경우에는 약 70% 정도가 鎭山이자 주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 邑治의 입지 및 공간구성과 鎭山

풍수적 주산으로 기능하는 鎭山은 邑治의 입지 및 공간 구성, 관아의 배치와 軸線의 설정 그리고 성황사 및 문묘 등 종교적 경관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컨대, 군현(읍)지도를 통해 鎭山과 邑治의 입지와 공간구성과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邑治는 鎭山이 結局한 곳에 입지하였고, 관아 및 객사의 공간배치와 좌향은 鎭山의 來脈과 조응하고 있는 것이다. 鎭山이 邑治의 공간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되었다.

첫째, 鎭山의 위치는 읍치의 입지 및 관아(건축물)의 배치 그리고 읍성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 영남 邑治의 입지를 鎭山과 관련지어서 살펴보면 많은 경우가 위치상 邑治가 鎭山을 등지고 남쪽에 입지하고 있으며 鎭山과의 거리도 보통 5리 이내에 입지하였다. 또한 주산의 기능을 갖는 鎭山은 관아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와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읍치경관에서 나타나는 제의적 장소의 배치 특징 및 鎭山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우선, 여단과 사직단은 邑治의 지형적 입지 특성과 무관하게 각각 북쪽과 서쪽에 모두 배치되어 엄격한 정형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여단과 사직단의 경우에 지형적 측면보다는 방위가 배치를 규정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황사와 문묘는 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변이를 나타낸다. 성황사와 문묘의 경우에 방위 보다는 읍의 지형적 입지조건이 배치를 규정하는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7. 鎭山의 풍수적 상징체계와 裨補

鎭山의 裨補는 이는 읍치 경관을 이상형으로 가꾸기 위한 경관보완으로서 의미가 있다. 역사적으로 영남 읍치의 鎭山에 대한 비보는 인공적인 假山(흙무더기), 숲 등의 자연소재나 조형물, 놀이, 이름 등의 문화상징적 양식이 있었고, 이들은 각각 형국비보, 지맥비보, 흉상비보 등의 풍수비보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경상도 邑治의 鎭山과 관련된 비보의 기능과 형태적 특징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鎭山의 형국(체계)적 상징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비보로서, 비봉형국의 鎭山을 보완하기 위

해 造山·造林한 사례가 선산, 예천, 순흥, 진주, 함안 등지에서 발견된다.

둘째, 鎮山에 대한 地脈裨補인데, 다시 말해 鎮山에서 邑基로 이어지는 來脈이 허약하여 그 來脈을 實하도록 비보한 경우로서 이는 鎮山에서 邑治로 연결되는 생태적 조건을 보완하는 의미를 띠며, 경주와 대구의 사례가 있다.

셋째, 鎮山에 대한 凶相裨補로서, 鎮山의 凶한 형세에서 유발된 풍수적 문제점을 비보하는 것으로 일종의 환경미학적인 의미를 지니며, 영산과 영주의 사례가 있다.

8. 요약 및 결론

이 글은 영남지방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시대 邑治 경관을 구성하는 특징적이고 주요 요소인 鎮山과 관련한 사실을, 鎮山 요소가 읍치경관에서 갖는 의미, 鎮山의 개념 정의와 기원, 鎮山의 기능 및 분포 특징, 鎮山이 邑治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미치는 영향, 鎮山의 風水의 상징체계와 裨補 등을 세부 주제로 살펴본 것이다. 본문에서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鎮山은 조선시대 邑治의 경관요소의 하나로서 취락의 장소성, 읍치의 입지, 공간배치 및 구성원리 등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조선시대 경상도의 거의 모든 邑治는 鎮山이 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鎮山의 기능적인 표현인 主山에 맥을 대고 입지하였으며 읍의 공간구성과 건축물의 배치역시도 主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邑治 경관에서 鎮山이 주요한 요소이자 읍치의 장소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요소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군현지도에서 邑治의 鎮山이 의도적으로 강조되었을 뿐 만 아니라 읍지에서 鎮山은 形勝으로도 표현되었음을 통해 알 수 있었다.

鎮山의 사상사적 기원은 崇山信仰에 기초한 神山 관념에서 비롯한다. 鎮山의 역사적 기원 및 과정을 요약하자면, 삼국시대부터 국가적으로 초기적인 형태의 鎮에 대한 제의가 있었고, 늦어도 고려 중엽에는 國都의 主山(松嶽)이 鎮山으로 배정되어 관리되었으며 이와 같은 관념과 태도는 지방도읍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조선 초인 15세기 중엽에는 각 지방 도읍에서 鎮山의 배정이 두드러졌으며 이윽고 16세기 중엽에 이르자 鎮山은 읍치의 경관 요소의 하나로 확정되었다. 조선후기에는 鎮山 來脈의 파악이 자세하거나 위치의 정확도를 기하고 있는 점에서 미루어보아 지리적 인식의 발전된 측면을 보인다.

鎮山의 기능을 발생론적으로 분석하면, 첫째, 취락을 鎮護하는 산이라는 고유의 鎮山 기능이 유지되는 鎮山이다. 이러한 鎮山은 거리상으로는 읍치의 5리 밖에 위치하는 것이 많으며, 이웃 군현간의 경계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읍의 영역성을 나타냄과 아울러 읍 영역내의 시각적 경관에서 가장 탁월한 산이 지정되어 읍의 랜드마크가 된다. 둘째, 초기적인 鎮山 개념이 풍수적인 主山 개념으로 재해석됨으로써 새로운 기능이 부여된 鎮山이며, 이러한 鎮山은 거리상으로 대체로 邑治의 5리 내에 위치하여, 읍치 및 주요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鎮山의 분포특징을 고찰하여 볼 때, 경상도에는 총 71개의 읍 중에 11개를 제외한 60개 읍에 鎮山이 지정되었으며 鎮山の 위치는, 北 31, 東北 2, 東 9, 東南 1, 南 6, 西南 1, 西 10개 읍으로서, 北에 鎮山이 지정된 비율이 5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서쪽에 鎮山을 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남쪽 방면에 鎮山을 둔 경우도 8개 읍이나 되었다. 鎮山과 邑治의 거리는 5里 이내가 39개 읍으로 66%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鎮山은 邑治의 입지 및 공간 구성, 그리고 관아건축의 배치와 向, 성황사 등 종교적 경관의 입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鎮山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風水裨補의 사실로서 경상도 邑治景觀의 鎮山 비보에는 형태적으로 인공적인 假山(흙무더기), 숲 등의 자연소재나 조형물, 놀이, 이름 등의 양식이 나타났고, 기능적으로는 형국비보, 지맥비보, 흉상비보 등의 유형이 있었다.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새로운 도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삶의 질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 증대,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 등에 의하여 분출되고 있다. 새로운 도시 환경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도시 정체성의 확립과 쾌적한 도시 생활을 보장하는 생태적 공간 환경의 구축으로 집약된다. 도시 정체성과 쾌적한 환경이라는 새로운 도시 환경은 역사적 문화적 상징성과 생태학적 건강성을 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邑治의 전통 경관을 적절하게 복원하는 방식으로부터 머릿돌을 놓아야 한다.